

4325 "
4343 서울역 내부
4407 서울역 내부 PAN→
4446 " PAN←
4455 음식점 PAN→
4515 F.S
4525 PAN→
4541 PAN→
550 타는 입구 ZO,FS
4606
4627 여자선물 CU FOLLOW
4640 아이모습
4708 한복입은 일가족
4736 앉아있는 일가족 PAN←

4746 낮 김기태(표지) 인터뷰

4747 돈가지고 있는 손에서 TU 빵이나 사 먹으라고
4840 담배에 불 부치고
4902 명적 쇠러 안가나
4939 나는 못내려가고 니들이 와서 나 좀 데려가다고 차비도 없고 추석 잘 쇠고 올라와서 나 좀 데려가라 곧 죽을때
가 됐나보다몸이 난 좋다 눈물만 나온다
5040 서울역에 계속 있을테니 니들이 와서 나 좀 데려가줘 우리 형제들 좀 보고, 가족 있는데서 죽어야지 여기 나오
면 객사야 그래서 억지로 살고 있어 고향가서 죽으려고 방송을 좀 내줘
5128 고개속인 모습
5123 서울역 스케치 PAN→
인파→김기태
5220 형제들이 남보다 못해

TAPE15

낮 김기태(꼬지) 인터뷰 계속
밤의 추종현과 김기태
슈퍼앞에서의 술

낮 추석의 서울역대합실 스케치
밤에 공원에서 만나는 조내수와 임복길
노래방

0001 낮 김기태(꼬지) 인터뷰 계속

0017 TD 약 봉지 뒤적거리는 김기태

0027 TU 약 꺼내고 물 찾는 김기태

0037 물이 없다 약을 못 먹네

0056 감기약이야

0112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안 좋아

01

20 약 CU→ ZOOM OUT

0124 누군가에게 술 병을 전한다. PAN→

0142 명절 잘 세라 나는 나중에 집으로 전화 좀 해줘 전화번호...

그것밖에 몰라 다른 건 다 잊어 버리고 그것만 기억해

230 나는 딱 죽고 싶다, 한달 후에 내 생일인데 한달만 있다가 그날 죽으려고 해 내가 9월 15일 행인데 음력으로 나는 그 때 죽어버릴려고 자살할려고 그래 진짜 세상 살기 싫다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옛날에 잘 살았어 그때는 다른 사람 부러먹으면서 쌀밥 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조금만 더 잘 했으면 이런 생활 안 했을텐데

435 내가 국가 대표 선수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탁구치라고 해도 탁구 잘친다

440 ZOOM OUT 전국 대회에 내가 2등해서 못 나갔다니까

450 술로 약 먹는 장면

0525 용산에서 약을 무료로 주는데 이틀치야 555 술이나 한잔 목자

600 새벽에는 빵을 못 타러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옆에 갔다주더라고 자고 있는데 빵을 갖가 놓았더라고 없는 사람 들끼리는 잘 통하는데 있는 사람들 하고는

0647 내가 옷만 있으면 옷을 주겠구만 옷을 못 찾아 왔어 이제 지났지만

0717 TD 형편없다 이거 술 마셔서 죄 흥터다 죽지 못해 산다 내가

0745 라이터를 꺼내준다

0812 담배를 건내준다

08:18 PAN 담배 CU

0837 아침은 하나도 안 먹었어 먹질 않았어 죽으려고 그러는지 속에서 받질 않아

0857 나는 제일 먹고 싶은게 된장 찌개야 3천 5백원짜리 그거 한 그릇 딱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빵하고 떡하고 우유하고 먹어

0940 짐 꾸러미 CU

0946 서울역 스케치 ZO

0958 과일에서 ZO, TU 술 마시는 장면(김기태와 2인)

1013 PAN좌좌

1030 술 마시는 장면

1048 PAN 우좌 술 따리기

1103 TU PAN좌우 사람

1118 잠바 뒤지는 김기태

1125 ZI

1135 ZO

1147 동냥해 가지고 한잔만 합시다

1207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돼 사람이 돌아다녀야지 손 질려야지 돈 주지

1213 동전 ZI ZO 이 봐봐 이래야 소주라도 한잔 사먹고 그러는 거야

1230 PAN 밥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1310 PAN 우→좌 김기태에게 돈을 구걸하는 모습

1323 내가 없을 때

13:37 앞에 나가서 손 벌리면 준다

1350 김기태 ZI 우리없는 사람들끼리는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맞아 죽는다 좀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지

1428 주머니를 뒤져서 담배를 꺼낸다 담배 ZI 나도 다 얻었어 지가 살려면 다 얻어 피워야지 돈도 없는게

1457 다 지가 살 궁리를 해야돼 나는 젊은놈이 일 좀 나가

일나가면 하루 2만 5천원인데 밥 먹고 2만 5천원이면 돼지

1535 PAN 좌우

16:05 술 마시는 김기태 과일을 안주로

16:30 야단치던 젊은 사람에게 술을 따라준다

1700 서울역 스케치 분주한 사람들 김기태 모습PAN 좌우

1710 같은 모습

1725 누워있는 김기태 ZI

1742 예수천국 불신지옥 스케치ZO

1924 입구 ZO
 1938 PAN우좌
 1950 표 사는 모습TD→ZO
 2002 "
 2036 ZI
 2057 ZO
 2107 짐 ZO
 2137 식당 PAN
2220 밤의 추종현과 김기태
 2228 라면 사 먹으라니까 라면 안 사먹고
 2252 김기태PAN좌→우
 2307 라면 값 주니까 라면 안 사 오고 술 만 사왔어
 2418 옷을 입는 모습
 2555 약 먹는 모습
 2626 추종현PAN좌우
 27:02 김기태로 PAM우좌
 2732 술마시는 장면
 2757 추종현 TU
 2841 추종현 PAN우좌
 2909 술병 컵 집어던지는 모습 나 잘란다
 2957 나는 잘란다.
 3016 잠자리 오는 추종현
 30:42 김기태 곁에 앉는다
 3146 라면 사먹으라고 돈 줬잖아 왜 안먹고
 3208 술을 먹으니까 만사형통이다.
 3254 추종현CU ZO
 3314 추종현과 김기태의 모습 왜 사먹으라는데 안 먹어
 3345 라면하나 사먹으라고 돈 줬는데 왜 안 사먹어 돈 주까 돈 천지다 돈 억수로 있다
 3452 이게 내가 꼬지 한거야 돈 엄청 많다 돈 많아 갖고 갈래
 3545 술이나 먹고 자야 겠다 잠도 안 온다 밤에 꼬지 가야지
 3659 아줌마 죄송합니다 저 배가 고평데 도와주십쇼 좀 도와 주십쇼

밤에 공원에서 만나는 조내수와 엄복길

3927 엄복길(조내수) 왜 이제 왔어 좀 챙기지 왜 이제 왔어 나 진짜 왔어 설명 좀 해봐 진정한 동생이고 아우고 이제 오나 중간에 전화번호라도 알려줘야지 내가 두수한테 전화번호 적어놔서 술 취했기 때문에 안 왔어 거기서 자고 그 날 저녁 일이 벌어진단다 잡혀가고 그런데 종구형도 쉬쉬하고 잡혀간놈이 누군지 알아
 4125 내가 죽겠다 나 오늘 처음으로 술 먹었어 내가 술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제 왔어
 41:47 서로 일어서며 포옹 왜 이제 왔어 일하고 왔어 두수한테 가자 나 괴로와 이 새끼 보니까 더 괴롭다
 3253 담배 불 부쳐주고
 4310 악수를 청하는 엄복길 미안하다 형이 진짜 싫었나 나는 너만 생각했어
 43 31 저녁때 가면 어떻게 명절 차례는 어디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4426 누군가를 부르는 내수
 4438 내수를 안는 엄복길
 4512 엄복길FOLLOW
 4554 신호등에 서있는 엄복길 조내수 + 1인
 4630 길 건너는 세사람 FOLLOW
 4658
 4736 사람들 FOLLOW

4823 슈퍼에서 먹을 거 사오는 내수형 FOLLOW

4905 안주거리CU
 4911 내수형에게 TU, 술 마시며 두수형에 싸움에 관한 이야기
 5040 애들이 떴어 개들이 떴어
 5120 동생을 때렸어
 5157 종구형 눈 탕이 밤 탕이 되고 우리형한테 왜 그래 그래서 때렸나봐 나한테 말을 안해
 5348 안주먹고 술 먹는 모습

5626 노래방 간판 엄복길 FOLLOW

5736 노래부르는 엄복길
 5755 PAN 내수형
 5815 PAN엄복길
 5847 조내수PAN
 5850 엄복길 PAN
 5912 노래방 화면 PAN

5930 노래방 기기TD
5936 바닥 TD
5950 노래부르는 모습TU
10001 노래방 기기 PAN
10035 조명 CU
10040 노래부르는 모습 TD
10113 엄복길 CU
10219 노래방 들춰이는 모습

TAPE 16

노래방 계속
서울역밤 스케치
밤 서울역 대합실,밖,지하도 몰카
서울역지하로도 몰카

염천교 지하로도 ZI(노숙자 자는 모습)
서울역에서 누워자는 김기태
나무옆의 김창균 인터뷰
대머리인터뷰 DIC부족

0011 노래방 계속

0038 내수형, 복길형 노래부르는 장면
0119 TD
0126 TU
0217 엄복길 CU
0500 엄복길 내수 노래 함께 부르는 모습
0555 엄복길의 손 CU

15*01 염천교 지하로도 ZI(노숙자 자는 모습)

1523 "ZI

서울역밤 스케치

1535 전광판에서 팬 나오는 사람들
1750 서울역 입구에 누워있는 노숙자ZO
1820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워자는 노숙자
1854 서울역입구오가는 사람들

1911 서울역에서 누워자는 김기태 PAN CU

2010 노숙자 주위를 청소하는 청소부
아들벌의 노숙자와 싸우는 김기태)
2040 김기태 내가 죽으면
2103 김기태 +1인
2118 담배피우며 일어나는 김기태
2240 네하고 나하고는 30년 차이난다.
2304 알아
2308 누구한테 알아하고 말하나
2316 다 안다고요
2320 내가 지금 노숙하고 있지만 나도 자식이 있어 내 아들이 32이야 너 나이 몇이야
2340 나도 괴로우니까
2346 여기서 괴로워 말고 다른데 가서 괴로워해 나도 고통스러워
23:58 집에 갈래요
2400집도 절도 없다
2403 우리집
2406 싫다 니네집 갈바엔 내 아들한테 가지

2424 밤 서울역 대합실,밖,지하도 몰카

2806 출고있는 우리는 하나

2817 얼굴정면

3112 밤 서울역 밖 몰카

3329 서울역 안 몰카

35:18 서울역밤 스케치(자고 있는 노숙자)ZI

3547 서울역안 몰카

나무옆의 김창균 인터뷰(42세)

3645 들어가는시간이 있거든 북부복지 회관
3737 북부노인복지회관 일자리도 알선해보고 아침 저녁주고 당분간 잘해주니까 더이상 바라는 것은 없고 생각외로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언젠가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돕고 싶고
3827 쉽터 들어가니까 좋더라 생각외로 그렇지 않더라 정부에서도 지원했는데 안가면 어찌겠어 깨끗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길가에서 노숙하게 되면 셋길해 뭐 일하러 가도 냄새 풍풍나고 사람 안 쓰고
39:24 놀고 일자리 있으면 가고 나는 중국집 주방장인데 오늘은 개털이네 어저께는 돈 8만원 받았어 차비하고 담배 사고
4013 노숙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김창균
4105 규칙사항은 술 먹고 들어가면 안 되고 술 먹으면 무조건 퇴장 단체생활이니까 그럴 수는 없는거야 술 마신 사람이 못들어간다고 전화하면 다음날 술깨면 들어가고 있는거지 거기서 한 사람 일자리 하나 보내줬어, 중국집에 게 일자리 해주니까 시원해 합격은 했어 대학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들어간거야 돈 벌어서 학교를 다니겠다 이거야
4336 없으면 말고 내일 봐야지 효창공원에서
200원짜리 밥 사먹고 거기서 놀거야
4411 거기도 실직자들 많이 있어 실직 노인들 밥 주는데 12시에 종교단체에서 무료로 밥 주는 데가 있어

4442 손CU

4500길 건너가는 김 창균

4538 서울역지하보도 몰카

4820 대머리인터뷰 서울역에서 노숙을하고 있으면서 할머니가 말도 못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보호자가 두들겨 패서 명이 들었는데 관공서 직원이 잡아 갔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노숙자라고 경찰이 아무나 두들려 뺄 수는 없느거라고

공원의 밤 얼굴을 크게 다친 두수형

0300 (친구A)너가 도와줘, 애는 입원을 일주일 정도 해야돼 성가병원은 입원이 않돼, 치료를 다 받았어

0410 (필)괜찮아요?

0422 고향 갔다왔어

0453 설정shot

0521 난장 피웠다고, 촬영하지마.

0606 시악이 뭐냐? 아이고 어지러워 (기차지나가는 소리)

0707 운석이가 물에 시악을 타서 내게 줬어

0730 눈앞에 뽕이 왔다갔다해

0800 홍운석이가 날 죽인다고

1000 종필아 나 정말 울고싶다.

1010 (아줌마 등장)

1220 (아줌마 퇴장)

1500 (필)손에 뭐예요? 피

1541 울화가 치밀어, 내가 왜 이러는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

1622 올라올 때 내가 죽을려고 했는데 죽지못하겠더라고 애들 때문에, 애들 온양에 고아원에 있어, 난 정말 보고 싶어, 날 볼 수 있게 해줄래?

프레이온(뿌란다애육원)인가 뭔가 전화번호도다 잃어버렸어, 영삼이와 영심이, 진짜 보고 싶어, 영심아 영철아(울음)
난 너희를 사랑한다. ZI 진짜 보고싶어 영심아 영철아 아빠 정말 보고싶어 근데,그이름을 잘 모르겠어, 어딘지 온양은 맞는데.

2000 ZO (소리내어 우는 두수형)보고싶어 죽겠어 ZO (소리내어 우는 두수형)

2342 (필)형수가 어디있는지 몰라요? 난 혼자야. 난 저기 나왔어(목을 만지며) 아야, 난 홈트 아동복지 나왔어, 난 혼자야

2505 설정SHOT (필)자꾸 만지지 말아요 텃 나요.

짜증나서 난 정말 주어 뜯고 싶어

2556 설정SHOT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나에게 이렇게 한 놈, 그 놈이 나한테 잘 해줬어 너도 알잖아. 종필아 지금 찍지말고 나한테 애들 찾아 줄거나, 온양에 있어 프레이온... (필)담배 거꾸로 물었어요

아빠로서 괴롭다. 아빠도 아니지,

(필)치료받고 잡시다.

애들 찾고 싶어 이제, 어떡하던 간에 애들 찾을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애들이 말을 못하겠네 애들 찾을 거야 내 씨앗은 내가 거두어야 하나까

(필)고향은 갔다 오신거예요?

3000 남대문시장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하는 여자

3025 서소문공원의 낮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ZO TU

(복길)두수 쓰러진거 경찰서에 있던 것, 원석이가 먼저 올라왔잖아, 하우스에서 쓰러져서 이틀동안 방치...

원석이를 야단치고, 백호,내수 야단치고 목상처 여덟바늘...

이따 두수 오면 물어봐. 충청도 음성에 데려다 놓고

원석이가 잡혀들어갔데, 영덕이형하고... 성가병원에 갔다오니까 양파,대파 흠치다가...

추잡스러워

두수는 말을 들어, 그런데 술을 한잔해서 상처가 터진거야. 성가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의사가 물어보길래 거짓말을 ...

이런 난장에 나와서 얼굴저러고 술먹고 쓰러져 있으면 다 잡아가

설정shot 기차길 철망에서 pan 복길형

책 CU ZI

3518 복길 pan 두수 명함(KBS)

절도로 잡혀간 애기, 지하도에서 자다가 끌려간 애기

3920 (B 양말을 신으며) 난 조이는 느낌이 좋아서 양말을 두 개를 신어

서울역에 카드 찾으러 가야해. 영민형이 왔다.

책으로 ZI ZO 책에 대해서

4115 설정SHOT TAKE3 OK

(필)희망의 집에 안들어가요? 난 상관없어, 나대로 생각이 있어. (필) 일 없잖아요. 찾으시면 있어.

(구두를 닦는 B) KBS에 기사를 잘 써달라고 했어. 중앙일보는 추석때 공원이 눈물바다였다고...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잖아. 불매운동을 해야돼.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삼성것은 죽어도 안사. 있는 그대로 써야지. 오히려 그런 사진 때문에 고향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서울역에 가야지. 다만 우리 식구들 담배라도 피게 해야지. 우리 가족인데

(떨어지는 B)

복길) 얼굴 많이 좋아졌어. 다들 그러잖아 얼굴 많이 좋아졌다고 주사가 상당히 강한거야 약보다...

두수) 감기도 주사를 맞으니까 근방 낫더라

복길) 입원환자외에는 주사 않줘 넌 심하니까 준거지 월요일날 준거지

4619 복길) 남자들은 그렇고 여자들은 숙소를 어떻게? 자꾸 늘어나더라고

두수) 여자는 더 늘어나더라고

복길) 성가병원 그 여자 내가 예전에 밥을 타줬거든 연세빌딩앞에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회사를 설립하자고 그랬다가 욕을 얻어먹었나봐 오늘 날 쳐다보고 말도 안하더라고

(영감등장)

영감하교의 대화---양파를 훔치다가 잡혀 갔다라는 얘기

5047 복어머리 ZO 철망의 이불, 나무의 옷

5140 지하도에서 잠을 자면서 꼬지를 말아야 하는데 여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간거야

그래서 싹 쏘아 간거야

꼬지를 하면서 술을 마시니 쥐? 암 주지! 밖에서 맨 정신으로 해야지

5340 (책을 보는 두수형 PAN 복길) 우리가 있을 때는 지하도가 깨끗했지 언제부터 더러워지고...

중구청직원과 싸운 얘기

5555 워낙 사람들이 우리같지 않아 개판인 사람이 많아

(술을 사오라는 영감)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을 사러가는 두수형, 슈퍼에서 만나는 두수형과 B)

5923 지하보도입구에서 콘을 먹고있는 막내 TAKE3)

10005 (필)요즘 여기서 자냐? 예

집에 안들어가? 예

요즘 한번도 안들어 갔어? 예

왜 안들어가? 갔다 왔으니까요 왜요?

10040 콘CU

(필)어떻게 사먹었냐? 꼬지 봐서요.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죠

고물과 은행도 했잖아. 그거야 옛날에 하고 지금은 안하죠.

자전거 고치는 건 어떻게 할거야? 자전거 고치는건 제가 알아서 고쳐야죠

TAPE18

막내 계속 서울역지하도 트래킹
 서울역지하보도 트래킹(휴지통을 뒤지는)
 공원에서 화투 서소문 공원 스케치
 다단계 면접

막내가 마구 촬영
 비오는 밤 서울역 밖 노숙자
 막내 인터뷰

0011 막내 계속 담배피는 모습TU

0020 (공원에서 왜 나왔냐) 아주 징그러워서 귀찮아서요 거기 못있어요 귀찮아서
 0030 (누가 귀찮게해) 아 거기는 술 심부름 하기 귀찮아서
 0040 어젯밤에는 어던 놈이 사진찍는거 잡고 어제 또 여기서 지갑 빼는거 경찰서에 넘기고 남의 지갑 빼는거
 0056 버릇이 안 좋아요 곧 바로 넘겨야 하는거
 0103 담배피우는 모습
 0107 (공원에서 생활하는거 보다 여기서 생활하는게 더 좋아)이쪽이 편하죠 아주 편해
 0111 왜 그냥요 여기는 심부름 시키는 형도 없고 내 마음대로니까 여긴
 0134 ZI
 0152 막내 지하도의 잠자리
 0202 지하도에서 막내 잠자리PAN
 0213 담요 꺼내는 모습
 0219 (집에서 자는거보다 여기서 자는게 더 좋아)예 제가 편하니까요
 (집은) 집은 아주 싫어서요
 (누가 뭐라그래)학교가라고 학교가라고 맨날 학교가라는 소리
 0236 학교 옛날에 다 때려쳤으니까
 0235 담요 가방에 담은 모습
 0316 구두끈 풀르는 모습
 0325 (한자책)이거 니가 보는 책이야 쓰는거예요
 글씨쓰는거 지금 볼펜에 없어서 못 쓰잖아요
 0340 막내 글씨쓰는 모습
 0354 막내 글씨쓰는 모습
 0420 재밌니? 네
 무슨뜻인지 알겠어
 0452 글씨 쓰는 모습TD
 0522 담배피우는 모습
 왜 지금은 공부해 그냥요
 왜 배우는데 한문은 알아야죠
 0603 글씨 쓰는 모습CU,TU
 0642 " TD, CU
 0659 " TU

0711 서울역지하도 트래킹

0758 여기서
 여기서 많이 실려갔어
 다 갱생원 간건가요 그럼요 갱생원 갔건 여기서 그런 생활하겠지 지하도 있는 사람들 요새 다 데려가 20일까지 밖
 에 못 있으니까
 0856 서울역 지하도 TRACKING

0941 막내가 마구 촬영

1923 막내 담배 피우는 모습PAN
 1943 막내슬리퍼 TU
 저 여자 찍혔어
 어디 알아봤는데 누구한테
 2036 막내촬영

2201 서울역지하보도 트래킹

2224 서울역 지하보도
 2301 서울역지하보도
 2304 서울역 지하철 역 모습
 2324 휴지통을 뒤지는 노숙자

2353 비오는 밤 서울역 밖 노숙자

2431 서울역 밖 노숙자
 2453 " " PAN
 2504 비오는 서울역 밖
 2517 " 노숙자 PAN
 2525 서울역 오가는 사람들
 2536 안노숙자 입구에서 PAN

2548 들어오는 경찰들
 2556 비오는 서울역
 2619 “ ” 안숙자
 2532 “ ” PAN
 2708 비오는 서울역 밖 노숙자
 2728 “
 2756 “ PAN
 2812 서울역안
 2840 서울역밖
 2850 서울역밖 노숙자 ZI
 2901 서울역안
 2909 쭈그리고 자는 노숙자 ZI
 2913 “ ZI
 2930 서울역안 자는 노숙자 ZI
 3001 “ 쭈그리고 자는 노숙자 ZI
 3008 서울역지하노숙자
 3300 종필과 대머리아저씨 얘기
 3420 다시 서울역지하노숙자
 3528 비오는 서울역 밖
 3550 서울역 보관함
 3557 서울역 보관함 모임
 3620 카메라를 든 노숙자
 3713 서울역 지하보도
 3746

3750 공원에서 화투

3805 텐트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아저씨
 3825 서소문 공원 거닐기 (기현형과 막내의 ‘나쁜 영화’출현 이야기)
 3934 서소문 공원 거닐기
 4008 서소문 공원 스케치
 4530 서소문 공원 거닐기
 4546 서울역 지하도 스케치

4637 막내 인터뷰

4642 자고 있는 노숙자 줌 인 줌 아웃 오늘 열통터져서 술 한잔 먹었어 열통 터지고 오늘 어떤 놈이 아는 형 다리를 부러뜨려서 내가 간호하고 있잖아 간호하고 있는데 나도 술이 왕창 취해서 오늘 건드리는 놈은 뒤져 나 건드리는 놈은 뒤져

4718 공원 다리에서 본 야경
 4820 서소문 공원 내부
 4835 서소문에서 서울역 쪽으로 길을 건너는 노숙자
 4850 육교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
 4940 서소문 공원의 아침
 4950 노숙자 아줌마 만원 쥐야지 물건 쥐야지 잠바 2만원에 팔아
 5136 뼈대만 남은 텐트

다단계 면접

5153 걸어가는 복길형 FOLLOW
 5200 다리를 건너가는 형
 5217 횡단보도를 건너는 형
 5219 담배 불을 붙이는 형
 5328 이력서는 안 썼어요 응 왜요 써 왔는데 안 가지고 왔어
 5359 복길형 FOLLOW
 5459 남대문 시장을 걸어가는 복길형
 5553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복길형
 5605 담배 꼬지를 하는 아저씨 담배 들어요
 5646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저씨 아저씨
 5709 충충히 걸어가는 아저씨
 5726 건물에서 나오는 복길형
 5740 회사는 잘 됐어 피라미드식은 아니고 모든 자재를 총 관리하는데
 5802 취업된 거예요 응 훈련받고 취업된다 사무실 큰데 처음 2백만원 보장 나만 충실하면 책임지고 해준데
 5854 본부장하고 면접보고 거기 들어가면 방을 얻든지 해야지
 10001 사무실이 다섯개 건물이 있다네 회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비디오 보고 강의 들으면 되는데
 10041 잘 됐네요 잘 됐어

TAPE 19 편점 NHK 기자와의 만남 김창균 현금 인터뷰
 광모형인터뷰양각촬영 김기태 코지, 청국장
 [아침을 여는집]에서 밥 먹는 복길형 TAPE불량

0000 편점을 보고 서울역앞을 걸어가는 복길형

정장 하고 가야 되는데 (필)어디는데요 세탁소에 잇잖아 세탁소에

0036 서울역-서소문쪽으로

0055 기차길에서 팬 서소문공원을 향해 걸어가는 복길형

0126 내수형과 얘기하는 복길 다단계판매가 아니다.

정수기회사 자체과

형 그거 다단계예요 아니다 말이다 판매하는게 아니고 자체관리만 하느거야 자체관리만

0144 투샷

그거 잘 알아봐야데 그거 걸려들지말고

다단계인지 모르고 뭘지 모르고(원샷)

내가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런식으로해서 다단계 걸려든 사람 많아 순천에 내 친구가 근무하는데야

0202 순천에 내 친구가 근무하고 있거든

0206 투샷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좀 알지 친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0220 NHK 기자와의 만남

0238 트래킹(몰카) 서소문공원

0335 [아침을 여는집] 식권을 받는 두수형

0343 트래킹(몰카)

서소문공원

술 먹었어요?

술안먹었어

0458 청호명함을 보여주는 복길형

0510 텐트에서 핸드폰을 거는 두수형

0649 트래킹 (몰카)[아침을 여는집]으로

0754 아침을 여는 집 내부

0758 아침을 여는 집 외부

0810 김창균 현금 인터뷰 공공근로사업은 안하고 내일을 한다 기증하는 마음으로 그런거야 그 사람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니까 불쌍한 노인네들 상계동이나 그런데 못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술도 한잔하고 좋은일도 할려고 그러니까 막상할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맨정신에 못 하겠더라고 쑥스럽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당신도 노숙하는 사람인데 선뜻 이런 돈을 내 놓을수 있냐 나도 남한테 얻어먹기만 했지 도움을 줘 보진 못했어 십만원 기증한거지 후원금으로 써 주십쇼 그것뿐이야 바라고 싶은것도 없고 노숙을 안하고 방을 얻어 쓰려는 방세가 한달에 여인숙비도 20몇만원이잖아 차라리 그러느니 다음달에도 만원이 됐든 십만원이 됐든 2십만원 이 됐든 더 낼수도 있고 덜 낼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우러난 마음에서 기증하는거지 그것뿐이야 다른건 없고

0915 (일은 좀 있으면가 보죠) 공공사업은 일 있는데 나는 그거 안간다고 (필 주로 어떤) 나는 내 직장을 구해서 들어갈려고 공공사업은 이만원에서 이천원에서 낮에 뭐 사먹고 나면 만 팔천원이고 나이 드신 분이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젊은 놈이 갈데가 많잖아요 안해서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식당이 월급이 적어서 안가고 뭐해서 안가고 오늘은 통 일이 없더라고 없으면 놀고 있으면가고 6시30분 까지 들어가니까 여기서 시간이 있어서 좀 보내다 들어가는거야 아침에 8시 되면 나오고 자유로운게 많아 생각하는거 외로 자유는 많애 다른건 없고

1014 담배 달라고 누군가 꺼어든다

1025 (필)같이 계세요?아니요 같이는 안 있어요

1028 트래킹(몰카) 서소문 공원

1042 밥 먹는 모습 나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만져보고 조직쪽에서 성질이 나서 툴만이 생활도 했습니다

1106 (밥을 먹는 창균이형) PAN

1118 그날 내가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전화를 해봐 와 계속 있을거니까 조용하고 좋아 쉽터 사람들 다 좋고 규칙을 알기 때문에 떠돌고 그런거 없어 아침에 일 있으면 일 나갈려고 그러고

1207 일 있으면 나와야지(필 오랜만에 드시니까 어떠세요) 사람이 앞전에 출고 배부르던 시절을 알아야지 자기가 뜨뜻하다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거든

1227 광모형인터뷰양각촬영

(다른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의지하고 좋잖아요)

1243 TU 마음이 통하면 좋지

(들어가면 공공 근로사업도 나가시고)그렇죠

1315 서울역에 보면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지금보니 없더라고요 그런데로 많이 들어갔어요 홍은동 쪽으로나 저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난 거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남에게 피해 중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340 내가 코피가 잘 터져요 피곤하니까 터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말이에요 안가고 차라리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몸 좀 나르면 일좀 해 갖고 일을 해야죠 마냥 이려고 살수는 없잖아요도 지금은 춥고 좀 있으면 겨울이 닥쳐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땐 환장하는 거예요 오갈데 없죠 잘 때 없죠 밥이야 어디서 한끼 두끼 얻어먹는다고 하지만 지금 심정 같아서는 진짜 피 눈물 나요 피 눈물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파도 부모 형제가 있나 내가 또 가진게 없으니까 일자리가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있는건 다 있어요 주민등록증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만원을 받던 오천원을 받던 일을 해야된다 이거지

1454 (요즘 안 보이시던데요)

1500 여기 나오면 뭐해

1505 밤) [아침을 여는 집]에서 PAN 광고형

1518 누구야 박동철인가 누군가 부산에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일어났더라고 공무원이 가르쳐주는 거야 자 국회의원이야 이거야

1550 해도 상관없고 뭐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다 괴롭다.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 괴롭죠 지금 오갈데없고, 계속 노숙이나 하고, 다 그런거 아닙니까 근데 추우니까 술을 많이 먹을 수가 없지

1623 손CU에서 TU 광고형 얼굴, 그냥 눈물이 아니다

1640 광고형 BS

1747 원경의 건물 ZO 광고형

1836 광고형 BS

(저녁 드시러 언제가세요)지하도가 먹어야죠 먹을때가 어딴어요 (지하도 말고 없어요) 밥 먹는거 말 하는거야 가진게 어딴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어딴어요 남보다 배운 것도 없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배운 건 없고 일자리는 안돼고

1956 아휴 (한숨 쉬는 모습)

2023 이렇게 가다가는 쓰러지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내 자신도 쓰러질거 같은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도 버티고 있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보면 쓰러져요 폭폭 쓰러진다니까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더 심각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그렇다고 끼니 세끼 다 찾아먹나 내끼 찾아먹나 잘 찾아 먹어야 하루에 한두끼 마음은 괴롭지 그러면 소주한잔 먹고 그러면 그걸로 땡 그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못 먹으면 사지가 다 떨리는데 다 사람을 다 죽이는거지

2124 한숨) 아이고 진짜 지금 이렇게 살봐야 차라리 아예 없어지는게 좋을거 같애 나는. ZI

2144 한숨) 사는게 아니라 지옥이야 지옥

2155 밥을 주는데 처음에 그러더라고 오늘 저녁부터 여기 서소문 공원에다 막사를 짓고 자게끔 해준다 이거야 밥을 먹고 세면도구 같은걸 준다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거야 교회 사람이 믿는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거야 차라리 안 하면 말을 하지 말든가 믿을 사람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돼

2304 (일은 하실생각은 없으시구요)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해요 지금 온 몸이 다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해요 사지가 다 떨리고 뼈 마디가 다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하란말 입니까 난 못해요 내가 노숙한지가 1년 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일을 하라고 해봐요 일을 하겠어요 생생한 사람들도 못하는데 못하는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가는데는 한 군데지 말이 일년 반이지 몸이 얼마나 상하는가 웬만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노숙하래도 못해 죽는다 그럴거여 공원에서 자봐요 앞 이빨이 다 흔들려 거짓말아니라 왜 술을 먹나 아침에 일어나면 추우니까 술로 달래는거야 사람을 술을 밤 모양으로 그것 밖에 없어요 추우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달달달 떨고 달랠수는 없고 어떤 사람한테 가 면은 밥 먹으라고 몇 천원씩 밥 먹으라고 줄거같애 천만에 교회가서 2-3백원씩 주는거 모아가지고 허기는 지지 당장 추우니까 그거 해가지고 소주 한 병에다가 과자 부스러기 갖다 놓고 먹는거야 그러면 추운기가 좀 빠져 그러면 잠이 스스로 온다고 그러면 공원이자 자 공원이자 자면은 일어나면 몸이 또 춥지 그러면 오갈데가 어딴어 그래서 밥이나 먹을까 해서 오며는 어떤때 밥도 얻어먹을때도 있고 못 얻어먹을 때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서울역 대합실에 가서 자고 신문지 깔고 그런거여

2524 있는 사람이야 다 털려도 몇 년은 먹고 산다고 그래도 없는 사람은 아예 없고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은 중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 아저씨 식사나 하셨습니다까 하면서 돈 몇 천원씩 주면서 아저씨 식사나 하라고 얼마나 그게 고마워 피눈물난다 피눈물 나 그게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가봐요 특히 대학생들이 심원 한장 안줘 이게 사람 미치는 거지

2603 사찰갔는데 가면은 아저씨 돈은 못들이고 쌀 드릴께 헤드실수 있겠느냐고 그러더라고 아유 주는 것만해도 감사하죠 하고 막상 가지고 와 봤자 해 먹을 데가 없어 쌀 한 되박 주면은 해 먹을때가 어디있어 그러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밥 해먹으라고 그런 거야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거 밖에 안 되는 거야

2652 얼굴 CU 여기 하루에 서울역에 보면 119구급대가 7-8대가 봐요 7-8대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세어봤어요 왜 그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되지만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 안먹어 안먹어 하면서도 안 먹을 수가 없어 날씨는 춥고 오갈때는 없고 몸은 떨리지 그런거여

2736 한숨

2749 ZO

2832 (아침에 일어날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청과동 가서 씻고 거기서 조금 앉아 있다가 용산가서 밥먹고 그것도 아니면 자고 술술 절어와서 여기서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서울역 지하도 가서 먹고 서울역 지하도 가서 자고

2900 (출지 않으세요) 말해 뭐해 왜 안 출졌어 아무리 지하도가 따뜻하다지만 추워요 추워 달달달달달 신문지 한장 깔아놓고 자는데 출지 안 추워요

2915 (아침에 일어나면 팬 참아요) 서울역 지하도 에서 땅바닥에서 자는게 말이 아니예요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아침에 서울역 3시에 물열리잖아요 2시 한 44분에 문 열더라고요 의자에 쪼그려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갈데가 어딴어요 그러면 빵이나 타먹고 발발발 떨면서 친구들 만나면 추우니까 천원만 있어도 강소주 하나 먹자 그거예요 노숙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3015 (희망이 들어가는건 어때세요) 희망의 집에 들어가래도 나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또 모르는 사람하고 살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좀 가진게 있어 야 들어가야지 몸 덩이 하나 덜렁 들어가봐요 사람 취급도 안해요 진짜요 단돈 얼마라도 가져가야 술 안하지 담배 못 피우지 그러면 사탕이라도 사먹어야 될 거 아냐 그러면 그거 얻어먹는 것도 한두번이야 그 사람한테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번 사줘야 된다고 없는 사람은 그게 정인데 지금 성가병원 오늘도 갈려고 그랬는데 술 안먹고 그런데 나는 술 냄새가 몸에 났어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길랑요 그게 여기 천주교에서 하는데 수녀님이 천주교 삼각지 여기서 다 추천서를 해줬다고 갔어요 중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런데 딱 가니까 과장이 하는 말이 나보고 내일까지 가라고 하더라고 아저씨는 술 냄새가 많이 나니까 다음에 오세요 술 먹지 말고 그래서 이틀 안 먹고 갔어요 그래도 냄

새 난다 이거예요 그래도 또 갔어요 아저씨 속이 안 좋으니까요 우선 피 부터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피부터 빼고 영양제가 뭐가 그걸 지어주더라고요 딱지가 있어요 그걸 가져가며는 1층이 내관대 약을 탔어요 내가 또 갔어요 입원하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수녀님이 추천서 까지 써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추천서 써주고 토콘 4개를 주면서 전화카드 하나를 줬다고요 2천원짜리 새거를 그래가지고

3310 수녀님이 하는 말이 아저씨 들어가더라도 없는거 뻔이 알더라고요 그때 돈이 어딴졌어요 2백원짜리 먹으려 갔는데 돈이 어딴졌어요 2백원 얻어가지고 간건데 토콘을 주면서 추천서를 써줄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녀님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 그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줬으면 나도 술 안먹고 정신차려야 하는데 노숙하다 보니까 어쩔수가 없더라고요 온 몸이 사지가 떨리는데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못 일어나요

3352 손가락 세개를 딱 (손가락 TD) 여섯개지 하고서는 일어난다고 온 몸이 다 망가졌다는거 아니예요 안 먹으면 흔들리고 쓰러질거 같은데 내가 오다가 서울역에서 아침에 개단에 서 굴러버린 거예요 왜 일어나니까 빈혈이 막 오더라고요 어지러워졌고 쓰러져 버린거예요 굴러버렸어요 동생놈이 허리띠를 딱 잡아가지고 나를 봤나봐요 동생놈이 형님 왜 그러슈 허리띠를 잡아가지고 서울역까지 데려다 준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서울역에서 잔거예요 보니까 손은 다 가졌지 얼굴이 얼굴입니까

3450 맨날 밥 한두끼씩 먹고 술 먹고 잠만 자니까 얼굴도 텅텅 붓조 잠은 못자기 내가 1년반을 노숙하고 있는거예요 넘었으면 넘었지 안 됐을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만큼 몸이 만다는 거요 뭐라도 딱 깔고 이불 덮고 자면 괜찮지만 신문지 달랑 두장 깔아놓고 자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야죠

3534 손 TD 맞아요 박스가 좀 낡긴 낡겠조 서울역 지하도 냉기가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먼지도 많조 사람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진짜 사람 미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 못하조 내가 병신이니깐요

3600 TU 여기서 잃어버린 것도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신발 가방 옷 잃어버린거 엄청 많아요 솔직히 주민등록증도 여기 뺄 주는 데서 만들었어요 접수해 놓고 사할 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저씨는 아직 말소가 안됐네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가서 띠어 온거예요 저는 혼련도 받고 보험료도 냈고 보험료 좀 안 냈지 요새는 왜 내가 당장 가진게 없으니까 지금은 못 내지요 있어야 내든하지 지금은 사정이 그렇고 ,

3719 정신이 아니야 나도 내가 나보면 알지만 술을 끈을 순 없어 ZI

형씨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어디서 자다가 조용히 고통없이 가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 3남 1녀예요 어머니도 자살해서 돌아가셨지 아버지도 물에 띄어 들어 돌아가셨지 큰형 죽었지 둘째형 죽었지 나하고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를 지금 못찾아요 어딘는지 그런 형편이여 나도 어떤때 내가 소주 한잔 먹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눈물이 펴 돌아버려 내가 왜 이래야 돼나

3907 큰 집 작은 집 있길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고향이 김천인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평택에 집안들이 많이 사는데 큰집 작은집 다 있어요 시골에는 학교를 안 다녔길랴 내가 야간 중학교를 다녔다고 책보를 매고 가방을 한 번도 안 들어 봤어요 가방 살 돈이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에 적어 뒀어 있으니 그때는 밥도 할지 모랐는데 밥을 했는데 잘못해서 냇가에 내버렸어요 아버지는 노가다도 다니고 그랬는데 옆집 아줌마가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얼마나 고마와요 시골가면 큰 집 작은 집 있는데 내 앞으로 땅이 안 돼 있어요 두세번 찾아가면 큰 집도 잘 살아요 작은 집은 교수예요 작은집은 잘 해줘요 그런데 큰 집 형수는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몇 만 원줘요

4326 누나꺼라도 떠오라 이거예요 상속권을

4403 손 CU

4407 길거리로 나서다

4425(어디가세요) 서울역 가요 (서울역엔 왜) 추우니까 가야줘

4503 신호등 건너는 모습

4533 서소문 공원

4555 공원 물가 트래킹

4744 카메라를 든 복길) 텐트에서 밥 먹는 사람들

4806 밥 먹는 모습FS

4914 김기태 포지

4947 청국장

4954 김기태씨 밥 먹는 모습 TU

5009 찌개 떠 먹는 모습 ZI

5021 밥찬 싸가는 모습ZI

5132 봉투에 담긴 반찬 TU-김기태 얼굴

5142 ZO

5204 밥 사주는 모습

5232 반찬 챙겨주는 모습-

5236 밥 먹는 모습

5322 누구 갔다 주시게요

5430 주방 PAN 김기태 밥 먹는 모습

4340 주방 PAN 김기태 밥 먹는 모습

5504 반찬 챙기는 김기태

5750 자리를 일어서는 김기태

5855 길거리를 걷는 김기태

5909 [아침을 여는집]에서 밥 먹는 복길형

0011 경찰폭력

0204 목발ZO

0211 뒤통수 FS

누군가와 얘기하는 모습

0236 생활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돼 나갈겁니다. 이 다리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0310 난 칠십돌이야 걸어다녀야 될 먹고 살지

0320 제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장기간 이렇게 있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물리치료해야돼요

0340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0345 언제요 나 죽은다음에

아니요 바로 곧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0359 해드릴게요

0416 힘 내십시오 너무 낙담하지 말고요

0420 목발CU, TU

0442 모자 쓴 노숙자 인터뷰

0448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래요 지나가다가 술 한잔 먹고 실직자라는 이유로 연세애들이 짤짤이 하고 있어 백원짜리 한 개 찍었거든 근데 잡아가가지고 유치장 보호실에 앉아서 내가 MBC 2580에다 전화했어 엇그저께 북창 동에서 모다방에서 조선일보 기자도 만났어 호소를 했어 정말 경찰관 유치장이 지존과 투나 키파라 와서 찍어버리고 반항한다고 뽕뽕 묵어놓고 직결 이틀을 살리고 술한잔 먹고 지나가다가 짤짤이하고 있다가 백원짜리라는 이유로 그렇게 두드려 패야겠냐고 그러서 상황 실장한테 허리 아파 죽겠으니깐 백오만원 주십시오 하니까 뒤지든지 살든지 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것이 사람이 할 소리야 거기가 민주경찰이냐고 여기서 정말 다 잡고 얘기해 봐봐 직결갔다 온 사람들 무조건 술만 먹으면 직결경찰보내

0523 지하도 안의 사람들 ZI, PAN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국간가 이것이야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쫓달린 놈이니까 나도 부모님 형제들도 ..하고 참 여기서 수많은 고생하고 여기서 수많은 고생하고 살아왔지만

0609 삿대질 하는 아저씨 ZO, 나도 12월달에 이번에 경기있어요 희망원 나갈라 그래요 술만 먹으면 무조건 술 한 잔 먹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두들겨 패고 직결 보내고 유치장 보호실 막발로 경찰관보고 지존과 투냐고 물러왔어 왜 이렇게 패는거요

0619

0621 행동이 불순하다고 뺨다는 거요 이거 우리 고향 아웃놈이야 찍게 났뒀 내가 호소하는 거여 왜 실직당해가지고 어려워서 죽겠고 우리 마누라도 서울역에 우리 동생들 알아

0643 군사 정권 시절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진단을 끊으면 20주는 나을거요 직결 2번 가서 두 번 다 그렇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유치장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래도 안해조 엇그저께도 우리 마누라가 찾아왔었어 나도 트럭운전사 출신이요 아이엠에프 오기 전에는

0659 이 사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정치인들이 지가 해놓고 왜 우리가 ... 사람 한 두명이 자살했어 이 나라를 누가 이꼴로 만들었냐고 그리고 우리 술먹고 지나가다가 짤짤이 한번 백원짜리 한번 찢었다고 직결 이틀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가지고 경찰관한테 유치장 보호실에서 그렇게 맞을수는 없는 거요 안그래요 난 정말 내가 할말이 많은 놈이요 이거 좀 꼭 방송에 내조 진짜요

0736 지 놈들이 한들이 아니여 나같이 억울하게 사는 놈들이 수백명이여 무조건 잡아가 술만 먹고 자고 있으면 잡아가 집 없고 뭐 없고 그러면 지하도에서 왜 못 잔다는 거야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내가 오죽하면 경찰들한테 니네가 지존과 투냐고 물어봤을까 사람이 그럴순 없는 거요 내가 추적 60분이나 시사 매거진 2580 또 뭐야 그렇게 해도 안돼 이게 조선일보 기자도 하나 만나서 그래 봤는데 안 때려조 왜 그러는거야 실직자 된 것도 억울하고 엇그저께도 내 아는 동생이 형님 형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거여 오늘부터 처음 장사해 저거 사천원에 갖고 와서 천원씩 벌라고 강도질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못 하게 하면 뭐 하라는 거요 취직안돼 나도 지하도에 살기 싫어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인제는 진실되게 살고 싶어 나도 교회 다니고 있는 놈이여

0841 내가 거짓말 하나 모자를 벗고 찍고 싶은데 여러 가지 소리 안들으려고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이여

0850 (한숨) 나도 나이가 46이여 양띠 1955년 10월 15일에 태어난 놈이여 내가 한 얘기중에 1%라도 거짓말이면 내가 천벌받을 꺼 자신있어 증인도 있어 이상

0910 (투덜) 엇그저께 우리 마누라 아니 싸우다 보면 서로 합의하면 보내버리는데 그런데 이런데는 말 다툼 조금만 있어도 잡아갔고 직결보내 버린다니까요 직결가면 술먹고 자고 있어요 두드려 패고 유치장에서 구류도 이틀 삼일 때릴걸요 벌금 낼 돈 있냐 없냐 물어보고 없다면 실직자가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마누라가 찾아와서 도망갔어 구류 최고가 29일이면 25일을 때려버린다고요 최하 20일을 이상을 때려버린다고요 두드려패지 않으면 몰라 밥이라도 괜 찰아야지

0953 완전 보리밥 에다가 왜정시대 그 때 밥에다 완전 625식으로

1003 계단을 올라가며 밥이 개선이 안됐어 그래도 교도소는 있잖아요

물론 여기도 누가 찾아 와가지고

1010 계단에 앉으면 사식이라도 넣어주면 사식밥은 그런대로 괜찮죠 노숙하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있어요 근데 밥이 나온다는게 완전 콩보리 밥에 보리하고 쌀하고 섞여가지고 반반 섞여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까만 간장에 저런 무 몇 개하고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개새끼도 그거보다 잘 먹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1050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정치하는 놈들이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게 만든거 아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들어왔

지만

1055 PAN 우→좌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게 만든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근로자가 이렇게 만들었어 나도 아이 엠프 오기전엔 트럭 운전사였어 11톤 우리 마누라 엇그저께도 내 얼굴 보러왔는데 나 도망갔어 존이 없으니까 이거 장사할려니까 또 방해하는 거봐 부서놓는 것 봤지 이거 오른 저녁만 세 번째야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 강도짓을 했어

1126 이거 호소하면 2580이이거 안해 모기자한테 말해도 안내줘 유치장 보호실에서 사람 두들겨패는데 상황실장한테 얘기하니까 이 씨발놈이 모라는지 알아 아파서 뒤지래 너무 아파서 뒤지래 너무 많이 맞아서 이것도 인간이냐고 술먹고 지나가다가 아는 애들이니까 100원자리하다 찍으니까 직결보내는 거야 그런데 내가 피해잔데 피의자로 만들어 또 직결 보내고 또 두들겨패 뽕뽕뽕어 뭐가 행동이 불순하다고 해먹을하니까 억울한거 호소하면 싸가지 없다고 때리고 기타로 때리고 빠따로 대가리 때려버리고

1205 술먹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들어준다고 발로와서 밟아 이 씨발놈들이 요것좀 조사 좀 해줘 진짜 이 씨발놈
1215 증인들이 한둘인줄 알아 그렇게 감다운 놈이 백명이 넘어 내가 알기로 아무 잘못없이 직결 보내고 두드려패고 서울역 정비한다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해야할거 아니야 지금 말로만 노숙자 합숙소도 징역살이나 다름없대다 애들 교회마저도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식당에서 밥주라 이거야 왜 여기와서줘 지네 교회 생색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이 나쁜놈의 새끼들 내가 물만먹고 20일을 견디일이 있어 왜 도둑질하면 징역가고 강도질하면 징역가니까 물만 먹고 20일 버텼다니까 왜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나도 한때는 나쁜 길을 걸었어 왜 부모 배신했지 가족배신했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 혼자 남은거야 형제간들 안 도와줘 한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고 영원히 나쁜 짓만 하고 사냐 이말이여 환장하겠어 자살하고 싶어 정말

1316 두 번 다 진단 끊으면 2주 나온단 말이야 상처가 한 두군데여 왜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야 오죽하면 나네가지존과 투냐고 물어봤어(고개숙인다)

1325 (모자 벗고)아이고 자증나 아무리 호소해도 안 돼 씨발놈의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도둑놈들이 양아치나 우리는 선량한 시민들이라 말이야 노력하고

1342 정말 씨발놈이여 시청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여 응 시청에 올라가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가족만아니라면 우리 마누라만 아니라면 내가 시청에 올라가 죽어 시청에 떨어져 죽어 진짜여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됐어 갈수록 더 어려워 지는 거여 용팔이 용팔이고 씨팔이고 찌끄러지건 조지건 내가 빨간 거 있으니까 참는거지

1407 다른 아저씨 나타남 까딱하면 니 몸조심해라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몸 조심하고 왜 궁갈쳐 가면서 그렇게 인권유린하고 두들겨 맞고 세상에 나도 인간이여 요렇게 방아하니 팔이 이만큼 부었어

1422 다섯이 와서 찍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왜 그러는거요(경찰이요)경찰관이 직결 내대문 경찰서 경찰관이 보호실 경찰관이 뽕뽕 뽕어놓고 한둘이여 증인이 내가 단 1%라도 거짓말이면 내가 죄를 받는단니까 놔도놔도 내가 찍으라 그랬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이나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줄 알아 응 우리를 진실하게 생각하면 교회단체에서도 지하도에서 밥주지마 지네 교회에 불러갔고 쥐 지네 교회선전하려고 지하도에서 밥 주는거 아니야

1501 나는 자신 있어 뭐든지 왜 또 담배를 뺏어가는 거야

1506 PAN 좌-우

1513 하지만 이 양반들 좋은 사람들이야 그만해 용팔이 그만하라니까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한 두군데 다쳐서 허리아파 죽겠어 지금도 비오면 나는 다리가 기브스한

1532 니 눈깔로 봐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니 눈깔로 보이지 사진한번 찍어줘 이것봐 이거 이거 한번 찍어줘

1540 기브스 다리고 PAN (맞으신거예요) 술먹었다고 직결 보내고 얼굴 찍으면 뭐 어때 눈만 자막처리하면 되니까

1606 교회도 하찬가지여 지네 교회로 불려서 식당에서 밥주라 이거여 시끄러 우리가 인간 쓰레기여 뭐여

1620 이거 맘대로 굶은 거야 대한민국 법이여 시비한 놈 나오고 구경한 놈 징역가는데가 대한민국 사회여 얼굴 안 나왔어 얼굴 찍지마

1640 교회에서도 지그 교회에 불려서 밥주라 이거여

1643 내가 얼마나 불편하게 이려고 땀기는데 니들 심정을 모르지

1647 오직하면 내가 니네들 지존과 투냐고 물어봤어 왜 이렇게 패는 거여 인권유린을 이만저만 당했으면 난 자신있어 증인이 있으니까 한 둘이여 분명히 한번 내주라고 이게 특종이여 한번 내주라고

1714 봐 난 자신있어 얼마나 가슴아픈줄 알아 난 자신있어 단 1%라도 거짓말 했으면 내가 천벌 받을게 증인들 한 둘이 아니니까 단 1%라도 거짓이 있으면 얼굴을 벗고 찍을게 판 사람이었으면 카메라 안 놔줬어 카메라 두들겨 깨지 깨는건 유가 아니야

1744 그리고 우리가 술만먹고 염병면다 그렇게 몰아버리면 안되는거예요 정책적으로 청파동화 심철호 회장이 방해 줄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잖아 우리가 거기오면서 집 값이 떨어진다 이거야 우리가 거기가면 왜 집 값이 떨어져 집 없고 막말로 이 나라를 털어먹은 도둑놈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정치하는 도둑놈들이 이렇게 만든거 아니야 공무원도 2천명 감축한다 겁줘가면서 그 새끼들 다 잡아들여라 죄가 있어야 잡아들이지

1823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니까 교회에서도 진짜 우리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밥 주지 말고 교회식당에서 불려서 밥줘 지네 교회하는거 아니야 단 1%라도 거짓말이면 내가 천벌 받을게

1843 자신있으니까 얘기하는거야 내가 지존과 투냐고 물어봤어 경찰관니네들 보호실에서 왜 이렇게 묶어놓고 패는 거여 즉결들어가서 묶이고 팬다니까 행동이 불순하다고 내가 진단 20주 나와 직결 4일 가가지고

1900 서울역지하도(걸어가는 모습)

1909 우릴 진짜 생각한다면 교회 식당에 가서 밥주라 이거여 여기서 밥 놓아주고

1912 누워자는 모습1

1920 누워자는 모습2

1928 누워자는 모습3

1939 지하도

2011 지하도 모습PAN

2026 차는 사람 ZI
2050 뭐 먹는 사람
2126 서부역 새벽 배식
2127 버스 지나가는 모습-배식PAN
2139 “
2201 배식장면 ZI
2215 배식장면 ZO
2222 배식장면
2231 배식장면 ZO
2238 상자에 담겨있는 우유TU
2250 아저씨ZI
2258 광모형 빵 가지고 가는 것FOLLOW

2315 [아침을 여는 집] 설정 샷

2403 저녁 아침을 여는 집 앞의 두수형
2548 서울역 대합실 놀이방의 아기들과 부모
3226 (몰카)놀이방으로 가가는 카메라
3500 대합실 의자에 앉아있는 광모형
3617 kfc
3725 지하보도의 누워있는 광모형 ZI NG
3818 연희 1동 남비현상
4522 남대문 지하도 배식
복길형을 만나다

4657 집들이

0005 집들이 계속 술 먹는 내수형 복길형 사람들

0057

0156

2718 골목길

2800 서울역 지하도 입구간판 CU ZO -TD

2812 서울역 내부 트래킹 광모형으로 다가감

2844 지하보도에서 광모형 인터뷰

2905 아버지가 술을 먹든 뭘든 하든 솔직히 돈 십만원만 줬으면 좋겠어 돈 십만원 왜 나도 써야 돼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가져다 쓰는데 나는 오십만원만 다 썼어 농촌가면 젊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내가 제일 막둥이예요 다 보면 칠십 오십 막사마다 하나씩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 가지로 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솔직히 쌀도 많이 5일장 쌀을 빼서 극장을 좋아했어요 내가 극장에서 껌 팔이 땅콩 오징어 아이스크림 장사까지 다 했어 다 해봤어요 안 해본거 없어요 중국집,극장, 농장 혼자 있으면 피눈물 나요 내가 이런 생활 안 할거 같은데 가진거 없다 배운거 없다 자격없다 그렇다고 남한테는 주머니 손도 못 대겠고 그렇다고 지금 큰 집 가면 6백은 가질수 있어요 누나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솔직히 말해서 내 땅 팔아서 뭐 할 거냐고 팔수 있다고 해도 사도 큰집에서 가로채고 집터는 손이나 많으면 초가집이라도 지어놓고 우리엄마가 내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화투를 좋아하니까

3434 (뒤에서 싸움시작) 나는 담담한거지 나 달라고 하면 반 잘라서 주고 놀음에 맞들려서 동네가면 노인네들 노는데 매일 놀음하고 우리 엄마는 환장하는 거죠 옛날에 옛장사 했잖아 양재기에 양젓물을 하나 주면서 내가 그때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말아 아랫터 담도 없어요 탕자 나무길랑 완전히 촌이니까 뿌리쳤는데 엄마가 따라갔어 놀음하는 판에 따라갔는데 동네 할머니가 나를 안는거야 어렸으니까 가지말라고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겠나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봤어요 그집 가니까 아무도 없고 농문을 여니까 씹어먹고 있는거야 우물에서 내가 울고 있는거야 할머니 잡고 있지 거기서 엄마 돌아가셨지 큰형은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이게 사는게 아니야 이게 뭐하러 사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전 가진거 없다지만

3932 눈물 흘린다

3943 옛날에 여기 서울역에서 자는 사람 몇명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별로 있어봤자 5-6명 지금은 이해가 안돼 따뜻한 방에서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뜻대로 안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도 시골가고 싶어요 진짜 큰집 뭐고 다 있습니다 이제 와서 조카들 보니까 장가가고 다 자리잡고 사는데 내가 이런 꼴로 가봐요 차라리 안 가는게 낫다 이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렇죠 내가 뭣뭣하게 옷 깨끗이 있고 세수 깨끗이 하고 가면 큰형도 생 거지가

4231 나도 체면있죠 그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체면이 있을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용히 살다가 고통없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절반도 못 살고 죽는다는게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죄 진건 없잖아요 엄마만 살아있어도 왜 엄마는 나를 자식으로 특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만 살아있으면

4446 한숨 눈물 닦고 명정한 표정

4512 서울역 지하보도 PAN 광모형 얼굴

4538 (몸은 편찮으세요)

4550 양말 내리며 이제 보여 부은 다리 CU 일어날려면 손으로 잡고 일어나야지 못일어나요 이게 사람몸이 환장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잖아요 몸은 떨리고 그러면 해장 한잔 한다고요 왜 몸이 추우니까 술 한잔 먹는다고 아는 사람은 알거요

4736 그렇다고 내가 맨날 돈 가지고 있나 뭐가 있나 나는 적어도 편찮아

4909 그렇다고 씨발 칼 들고 씨발 어덜다니면 나만 부르더라고 아침에 서소문공원 가니까 사람 대여섯 명이 있는데 아저씨 아저씨 이리와봐요 나를 딱 보고 손짓해 오라고 왜요 그리고 가봤어요 봉고차였어 아저씨 먹는거니까 먹으라는거 아니요 고기 오뎅 국물에다 오뎅에다 그게 들어가요 왜 하필 나한테 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보면 아저씨 이거 잡수실래요 하나 갖다 드리고 오뎅 국물에다 먹고 떡볶이에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솔직히 (부처)이거도 아니잖아 사람들이

5122 나도 고기 많이 먹었어요 사실 배들레했 앞에 가면 200원이에요 밥을 먹으라 이거야 둘이 갔는데 2백원 가져가서 밥 먹으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아줌마가 어디서 나오는거요 노숙을 1년반이나 해서 몸이 안 좋습니다 아저씨 둘이 가면 5천원씩 나눠야 될 거 아니예요 그 사람은 가버리고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오천원 천원짜리 다섯개 있더라고 아가가 일곱 살이고 3천원 줬어 3천원을 줬습니다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저 아저씨 먹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나는 되져 버릴려고 나는 솔직히 가진거 다 있어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수첩 다 있지만은

5434 아휴 날씨는 추워지고 그렇다고 로 갈수도 없고 어제 평택 고모가 여인숙을 하거든요 여인숙 내가 딱 들어가면 아저씨 일로 오세요 아니라고 고모부님이 돌아가셨거든 시골 농행이들하고 하는거예요 우리 고모도 별거 다 해봤어 내가 한참 일할때 나는 혼자 살기 싫더라고 고모를 찾아갔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농행이가 있더라고 조카 막내가 칼침맞아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본적은 거기고 주소는 남대문오가로 동사무소 가니까 말소됐다고 돈 만원 달라고 해서 만원 줬어요 그 다음엔 3만원 달라고 하돼 고모가 돈은 있나 네 그랬어요 가자마자 돈 달라는 말은 못하고 4만원인가 고모한테 뭘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고모님 몇 만원 줬어요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나 나보다 나은니까 우유나 사다 잡수시라고 절대 안 받더라고 차라리 돈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나보고 친구하고 올라오다가 맥주한잔 먹고 돈이 어딴거요 첫째는 부모가 최고고 두번째는 고모님이고 세번째는 큰 집 작은집 필요없어요 나한테는 그 사람들은 뭐든지 뺏아먹을라그러고 큰 집 가면 빌라에 사라 형님은 도와줄려고 하는데 동서는 나를 싫어하고 작은집에서는 나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작은집 형님이 잘 해 주걸랑요 그런데 약주를 많이 해요 큰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작은 할머니는 살아가시고 가면 꼭 작은 할머니 하고 작은 형님하고 약주를 먹더라고 보면 그러면 내가 몇번 갔어 서너번 체면 불구하고 가니까

지하보도의 광모형 계속 (마스크 벗고)

0001 지하보도에서 노숙자 자는 모습-ZO광모형 담배 피우는 모습

0134 한숨 쉬며 아휴 싫다 남들 하지 못할거야 냉장고도 400리터짜리 형수가 사람이 맥이 없어 영양가 있는가 없는
가 모르겠지만 대변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다 잘 살던 사람들이지 지금 회사가 웬만하면 다 모가지 야냐 나 같은
입장에서도 솔직히 대천가면 오라고 해요 사장을 보기 싫은게 아니라 민망해서 못 가는 거야 술 먹고 얼굴 탕탕붓
고 가 가지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뭔가 틀리는거죠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가며는 낮고 얼굴
좀 낮고 가면 좋은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니 알 가는게 속 편하다 이거지 나는

0419 사람이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0446 마스크 쓴다

0606 카메라를 든 백호

0702 몰카 트래킹

0836 신발CU - 자는 사람들

0930 " OK

1210 팬 자는 사람들 2샷 - 팬 LS - 팬 2샷

1300 노숙자FS 줌아웃 2샷1313 노숙자 스케치 줌인1335 노숙자얼굴 CU 줌아웃1409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 줌인 줌아웃1433 자는 노숙자 아저씨 줌인 줌아웃1446 지하보도 노숙자 줌인 줌 아웃1524 서소문 공원 밤

1614 서울역 밖

1624 서울역 역사 안 FOLLOW

1733 노숙자 자고 있는 모습 줌인 줌 아웃

1803 광모형 자고 있는 모습

1822 노숙자 자고 있는 모습 줌 아웃- 광모형 자고 있는 모습

1925 자고 있는 노숙자 줌 아웃-광모형 자고 있는 모습- 자고 있는 노숙자

2028 자고 있는 광모형 줌인

2120 자고 있는 광모형 클로즈업 줌 아웃

2217 자고 있는 노숙자

2240 코 풀고 자는 노숙자 줌인 줌 아웃

2327 자고 있는 노숙자-광모형

2417 자고 있는 노숙자

2453 자고 있는 노숙자

2618 광모형 클로즈업

2658 서울역 역사 거닐기-노숙자들 자는 모습

2717 자판기 옆에 노숙자 자는 모습

2734 여기저기 자고 있는 노숙자들

2925 밤 서울역 스케치

2944 서울역 역사안 -노숙자들 자고 있는 모습

3011 건설 표지판

3023 입 벌리고 자고 있는 노숙자

3043 자고 있는 노숙자

3257 " 팬

3350 자고 있는 광모형

3438 "

3543 서울역 FOLLOW

3600 서울역 내부 스케치

3711 의자에서 누워자는 노숙자

3804 서울역 내부 스케치 -역 승무원이 놀이방에서 노숙자 내모는 모습-아침에 청소하러 돌아다니는 아줌마
빵과 우유를 먹는 노숙자

4111 의자에서 일어서는 광모형-광모형 FOLLOW

4218 서부역 세벽배식으로 향하는 광모형(거리의 노숙자들)

4410 아침 배식(빵)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노숙자들-여기저기 앉아있는 노숙자들

4645 서울역사안-빵을 들고 들어오는 노숙자들

4748 빵을 들고 들어오는 광모형

4819 신문지를 깔고 있는 광모형-서울역사안에 노숙자들과 광모형

5016 서소문 공원 스케치

막노동을 나가는 두수형

5137 서소문 공원의 밤 스케치

5230 두수형을 깨우는 종필

5333 두수형에게 담배불을 붙여주는 종필

5600 어디로 갈까요

5630 버스를 타고 가요

5850 화장실 간 두수형 FOLLOW

5940 화장실 표지판

10010 세수하고 준비하고 길을 나서는 두수형

TAPE 23

막노동을 나가는 두수형 계속
일당을 받아오는 두수형
서울역에서 꼬지하는모습
아이들에게 가는 두수형

운전기사 인터뷰

막노동을 나가는 두수,내수,덕수
서소문 아침

0003 새벽 막노동을 나가는 두수형 계속 클로즈업

0050 길을 건너는 두수형

0137 두수형 FOLLOW

0217 갔다 몇시에 온다고요 8시 끝나긴 6시에 끝나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0310 자고 있는 노숙자에서 땀 두수형

0546 서울역 지하보도-자고 있는 노숙자들 사이로 일을 가는 두수형

0728 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차를 기다리고 있는 두수형

0825 서울역 앞길 오가는 차량들

0847 서울역 시계 줌 아웃

0909 서울역 시계 줌 아웃

0936 '한신'이 붙어있는 차-차에 오르는 사람들

1036 운전기사 인터뷰 일거리하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딸리는 형편이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현장이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필요가 없을때는 하루 일당도 못하고 그러는거지

1201 [한신인력개발 건설인력 알선전문회사] TU TD 차안의 노숙자들

1224 운전기사 인터뷰 아이엠에프라 말도 못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5-6만원은 받았었는데 요새는 3만원 3만 5천원 받기도 어려워 (왜 떨어져요) 서로 경쟁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서울에만도 직업 소개소가 몇 백개가 되는데 무허가가 많고 하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나가며는 일할을 떠거든 4만원짜리면 4천원 댄다고 백명이면 40만원이지 발이 넓어서 어디 소개시켜주면 떠는 거지 소개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거든 한사람이라도 더 내보내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경쟁이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와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1558 민주주의에 병폐 라고 사회주의 국가라면 통제가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거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만 고달픈 거야 수요와 공급에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많으면 자연히 뭐든지

1643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호소하는 사람

1823 요새는 좀 있는 편인데 12월달 가면 없어요 현장에 투입하는건데 일이 없어 (작년에 비교해서는 어때요) 작년에 비교하면 절반도 더 줄었지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을 투입하다 보니까 우리회사에서도 사람이 주는 거지 독점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니까 작년만해도 거의 독점적으로 나갔는데 여기저기서 와 가지고 하니까 다 주는 거지 적게 받아가는데 줄려고 하지 누가 많이 받아가는데 줄려고 그래

2003 절반정도 줄었다니까 5,6만원 받다가 올해는 그저 3만원

2045 땅 바닥 오늘은 몇 시정도에 출발하실 수 있겠어요 25분에서 30분정도 맨날 그래 출발시간이

2138 버스 시동

2214 버스 출발

일당을 받아오는 두수형

2239 공원 밤 서소문공원옆 도로의 차

2308 서소문 공원 밤 가로등 줌 아웃

2331 서소문 공원 다리 두수형 모습 잘 갔다 오셨어요 일당 받았어요

2405 일당을 보여주는 두수형

2453 남양주 일동있는데 (일이 힘들어요)죽겠다 -두수형 FOLLOW

종구형을 만나러 가는 두수형

2716 시장 입구에 서있는 두수형

막노동을 나가는 두수형,내수형,덕수형

2727 기차가 오가는 서소문 공원 다리

2754 두수형-담배를 피우는 두수형

2959 서소문공원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두수형과 내수형

3028 길을 건너는 두수형- 내수형, 두수형 FOLLOW

3137 내수형의 쇼핑백 클로즈업-내수형 FOLLOW

3207 서울역 시계탑(4시 20분)

3220 새벽 일하러 나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3317 줄을 서 있는 두수형

3420 봉고차가 오자 그리로 몰려가는 사람들

3455 봉고차가 떠나고 남은 사람들

3509 기다리는 내수형

3533 다시 봉고가 와서 일을 가는 사람들

3556 한신 차가 와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3622 서울역에서 꼬지하는모습

3640 서소문 공원 트래킹

3757 서소문 공원 밤 장면

3900 두수형과 이야기 하는 밤 아이들에게 가기위해 7시에 출발한다는 이야기, 목욕탕에 다녀오라는 이야기

4026 서소문 아침 아이들에게 가는 두수형

4048 두수형과 아이들 만나기 위해 서소문 공원을 출발하는 모습

4203 기차표를 보고 있는 두수형

4224 대합실 풀샷 팬-표를 사기 위해 줄 서있는 모습

4256 기차표 줄 아웃-두수형 바스트 샷

4309 기차 안내판-장항 무궁화

4350 기차에 오르는 모습

4400 기차에서 본 밖의 풍경-두수형의 앉아있는 모습

4503 레일 모습

4529 밖을 바라보는 두수형

4622 두수형과 기차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바스트 프로필

4641 기차의 전등

4644 두수형 기차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4751 기차의 전등-틸다운 두수형 기차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4902 내리려는 모습

5055 내리는 모습

5139 온양온천 간편

5147 전화거는 장면

5254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두수형

5306 (아동복지시설 푸른나무교육원 간편)

5413 보육원안으로 들어간 모습

5321 아빠

5439 두수형이 아이를 안은 모습

5455 두수형 딸 등장

5518 아이들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간 두수형

5556 아이 손을 잡은 두수형 손 클로즈업

5612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두수형

5620 앉아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수형 줌인-아이들 노는 모습 팬

5736 그네를 타고 노는 아이들-팬 바라보고 있는 두수형-팬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

5821 두수형에게 앉기는 아이들

5850 아빠가 사다준 오징어를 먹고 있는 아이들

5915 담배를 태우고 있는 두수형-농구공 가지고 노는 아이들

10102 짜장면 배달은 아저씨

온양보육원 계속

- 0006 짜장면 그릇 클로즈업-짜장면 먹는 장면
 0148 짜장면을 먹여주는 두수형
 0248 짜장면을 아이입에 넣어주는 두수형
 0326 아빠와 놀고 있는 아이들
 0343 카메라에 다가오는 아이들
 0359 아이 입을 닦아주는 두수형
 0438 아빠에게 매달려 있는 아이
 0457 그네 타는 아이-농구하는 두수형
 0540 엄마에 대해 아이에게 묻는 모습
 0602 농구를 같이 하고 있는 두수형과 아이들
 0638 농구공으로 함께 축구를 하고 있는 두수형과 아이
 0732 공을 가진 아이 줌인
 0750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두수형과 아이
 0820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두수형과 아이
 0920 아이를 무동태한 두수형
 0942 아이 놀이기구를 밀어주는 두수형 줌인
 1052 아이를 앉고 있는 두수형-운동장에서 농구하고 있는 아이들
 1132 두수형과 놀고 있는 아이
 1151 아이와 장난치고 있는 두수형
 1312 아이 장난감을 고쳐주고 있는 두수형-아이 귀를 잡고 장난치는 두수형-권투를 하면서 놀고 있는 아이와 아버지
 1532 아버지에게 매달려 있는 아이 줌인
 1556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두수형-귀지를 파주고 있는 아이들
 1656
 1710 두수형
 1718 카메라에 매달리는 아이들
 1751 두수형한테 매달리는 아이들-팬
 1834 아이들에게서 줌 아웃-아이들 모습
 1914 아이들을 바라보는 두수형
 1917 길거리를 거니는 두수형
 1943 딸아이 -아버지-딸아이
 2007 아버지와 딸아이
 2020 두수형을 따라오는 아이
 2128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에 간 두수형
 2220 두수형을 따라다니는 아이들-두수형 손을 꼭 붙든 아이-군것질하고 있는 아이
 2321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두수형
 2444 아이 군것질을 따주는 두수형-군것질 하고 있는 여자아이
 2655 아이들과 놀고 있는 두수형
 2753 두수형 바스트상-홀라후프를 잡고 노는 남자아이
 2834 아이와 헤어지는 모습
 2844 아이들-두수형 헤어지는 모습
 2928 기차타고 오는길에 바깥 풍경 두수형 프로필
 2959 창에 비추인 두수형의 모습- 두수형 모습 줌인
 3038 바깥 풍경-두수형의 모습
 3157 서울역에 내린 두수형
 3217 애들 잘 노는 것 보니까 좋고 돈 열심히 벌어서 애들 데려와야지-인파속으로 사라지는 두수형 뒷모습
 3309 오늘 기분 좋았고 앞으로 돈 열심히 벌어서 애들 데려다 키워야지, 열심히 살거야-서소문 공원으로 가는 뒷모습
 3400 서울역 밤 역전파출소 스케치
 3416 서소문 공원 다리를 걷고 있는 두수형
 3438 서소문 공원안으로 들어가는 두수형
 3457 서울역의 낮 간질병노숙자가 복지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아현 복지회관)-갈데가 없어서 왔다갔다 한다
 3658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감

3710 [희망의 집] 입소를 위해 원서를 쓰고 있는 두수형

- 3743 정부의 실업대책 공고
 3748 두수형의 국가기술 자격증-입소를 위해 상담하고 있는 두수형

3830 상담하고 있는 두수형 웨스트샷

3900 두수형 잠인

3913 상담기록지 기록하는 모습

3925 복길형과 두수형이 컴퓨터 입소 건물앞에서 이야기 하는 모습 투샷

4034 두수형과 복길형이 일자리와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모습

4249 김창균 인터뷰

(컴터는 어때요) 컴터는 요새 공공사업 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나갔습니다 내 직장을 잡기 위해서몸이라 도 무겁고 안좋으면 늦게까지 좀 쉬었으면 하는데 규칙상 8시에 나가서 6시에 들어와야 하고 컴터에서 일을 못나가 면 서울역에 다시 오게 됩니다 자기 원하는데 보다 너무 멀다보니까 술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술 한잔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4325 (서소문 공원의 사람들 풍경에서 줌 아웃)

(컴터는 어때요) 컴터에서 공공사업 많이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갔어요 왜 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안 나가고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좀 오래 있어야 돼는데 규정상 나가야 돼고 하니까 다시 서울역에 올수 밖에 없죠 일자리 있을 때는 명절 쇄고도 며칠 나가고 했는데 요즘 또 자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건 없어요 조금 오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게 없고 그러면 여기와서 밥 얻어먹는거죠 술 한잔씩 하는 사람인데 술도 못 먹게 하지 여기 노숙하는 사람들이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술 먹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퇴소니 하고 술 먹으면 몰래 들어와서 자고 있는거지 알아도 모른척 해주는가봐 상담자가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자니까

4438 얼마전에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주민등록증 때문에 내가 노숙하면서 2월에 팔아먹었어요 그것이 핸드폰을 뺏았다고 뭐가 나한테 날라왔길래 하도 춥고 배고프고 도둑질은 못 하겠길래 뭐가 날라왔더라고 나한테 얘기할 때는 장사한다고 그랬었거든 사업자 등록을 좀 빌려주라고 나는 장사할 능력은 못 되고 그랬더니만 그걸 역이용해 먹어 가지고 이제 와서 차가 어떠니 하는데 그런건 없고 아직까진 핸드폰 값만 나와있어 경찰서 가서 신고 하자니 겁나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될 대로 대라 그때가서 만약에 일이 생기면 얘기를 하지 술직히 춥고 배고파서 걸리면 얘기해야지 검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춥고 배고프고 도둑질은 못하겠고 요즘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일도 못하고 마음이 뒤숭뒤숭하고 마음이 또 홀뜨려졌어 명절쇠고 마음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홀뜨려져서 미치겠어 지금 그래서 지금 또 술 먹고 그래

4605 착잡한 표정 잠인

4617 총총히 멀어지는 모습

4635 두수형의 과거 인터뷰

저는 요리사였습니다

(노숙은 언제 부터했습니까) 2월달 부터 그전에는 요리사였습니다

4700 그전에는 식당업 좀 하다가 망해가지고 노숙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요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4720 요리사 자격증 잠인

4728 그러고 애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애들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나니까 보고 싶고 같이 생활하고 싶어요 내 의지로

4756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고맙고 친구들도 고맙고 진짜 고마워 다 서소문서 우리 사람들이 전부 좋은 사람들만 있어 내가 보면 좋은 친구들이 있고 동생도 있고 한테 우리 같이 살면 진짜 좋겠어 동생도 진짜 좋아

4840 (국가자격증 클로즈업) 일을 못 나갑니다 텅텅 바스트

4855 사오월달 부터 했습니다 참 힘들게 애들 보고 싶은거 하고 어떤 분이 나를 애들 있는 고아원에 보내줘서 행복해요 지금 한숨

4945 저는 4월달 부터 노숙생활 했습니다 요리사 생활은 18년간 했구요 개인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돼지 갈비집 하다 망했어요 우리 애기들 전부 고아원 갔다 놓고 애들 전부 찾아와야조 찾아오고 싶고 꼭 찾아와서 됩니다 잠인 그러나 이제 갈려 그래요 친구들 동생들 고맙고

5051 텐트 인서트

5109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 동생들 다 있지만 들어갈려니까 나도 괴로워요 괴로운 것도 있지만 속편해 내가 이 친구들 꼭 만나러 올거고 우리 애들 꼭 데릴러 올거야

떠나는 두수형

5200 영등포 복지관 들어간다

5212 복지관에서 열심히 생활해야지 복지관에서 열심히 생활할거야 애들 데리고 온다니까 내 자식놈은 내가 뿌려놔었으니까 잠인 줌 아웃 친구들이 미안하다 미치겠어 우리 친구들 내가 다시 불러야 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해야 되고 한숨

5336 두수형 친구들 술마시는 장면

5428 술 따르는 장면 줌 아웃

5445 건배- 술 마시는 장면

5500 둘러앉아 얘기하는 모습

5530 정치인이 한번 나한테 와서

5637 정치인이 와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와주는거 하나도 없었어 심철호가 와서 도와준거 뿐이지 심철호가 뭐 해줬는데 추석날 잔치해주고 아 추석날 송편 몇 개하고

5702 내가 남대문 경찰서를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들어왔어 저기 서울역 지하도에서 자는 사람이더라고 들어갔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를 주더라고 심철호씨 형사 선생님이 뭐라 하더라면 아유 씨발 저지 카드 씨발 너도 심철호 식구야(나도 당했잖아 그거) 그것도 술 취했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 내가 그걸 보고 정말 짜증나더라고 그지 카드라고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열받어

5758 악수하는 손 털업

5810 얼굴 부비는 모습

5821 손 악수하는 모습 털업 우리 아들놈이 오 마이 갓 그게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는데 오 마이 갓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아들놈이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 아빠 오 마이 갓

5855 짐 싸가지고 서소문 공원을 떠나는 두수형

5929 길거리에서 약도를 보고 있는 두수형 들어가거든 나오지 마라 형 어디서 자고 나는 이불 덮고 아무데서나 나
고

10001 짐을 싸가지고 가는 길을 건너는 두수형

10008 두수형을 바라보는 모습 어쩔랄려고 _

10016 한숨쉬는 모습 고개 돌리는 모습

10021 두수형을 마중하고 있는 내수형

0003 두수형 복길형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인사- 계단 오르기
 0029 두수형이 계단 오르면서 복길형의 손을 잡고
 0047 내수형 손을 잡고 지하철 1호선역
 0125 지하철안에서의 두수형 창에서 PAN
 0152 "
 0209 지하철안 창에서 두수형 팬
 0232 두수형 얼굴 클로즈업
 0245 창에서 두수형 팬
 0304 창에서 두수형 팬
 0332 짐을 들고 있는 두수형 털업
 0428 영등포 표시 안내판과 안내 방송
 0506 두수형 뒷 모습 FOLLOW
 0548 두수형 지하철 역에서 거리로 나서다
 0558 열심히 하고 몸 추수려가지고 재취업 해야지 이제 열심히 살거니까
 0618 보현의 집 간판 줌 아웃-보현의 집 풀샷
 0639 희망의 집 가서 어떻게 사실려고요
 0645 열심히 살고 애들도 데리고 가고 다음에 아무튼 열심히 할거요 또 보길 바라고 -보현의 집으로 나는 모습 줌
 아웃
 0713 보현의 집 풀샷
 0828 보현의 집 현판에서 줌 아웃
 0847 영등포 길거리 두수형이 다시 오는 모습
 0914 술 취했는데 나보고 술 먹었어 형? 나가래?
 0923 쭈그러 앉아있는 두수형 줌 아웃
 0945 쭈그러 앉아 있는 우수형 줌 인
 1005 정문 사이로 통해본 보현의 집
 0126 "
 1047 보현의 집 앞에 앉아 있는 두수형
 1057 어떻게 얘기 하는데요 이형이 술을 먹었다고 인정을 했다고요?
 1119 형님, 계속 아니라고 그러다가 딱 한잔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뭐하
 러 해요
 1138 한잔했다는 얘기는 하네요
 1145 엿저녁에 오늘은 안 하고 엿저녁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현의 집 앞이구요
 1233 다시 전화를 하셔서 다시 보현의 집 앞에 앉아 있거든요
 1257 제가 같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05 술 먹었다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1414 가자고 빨리 필) 한번더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가야지 같이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겠네
 1454 들어가야지
 1505 줌 인해서 불 켜진 보현의 집
 1514 보현의 집에서 줌 아웃-두수형
 1537 영등포 보현의 집에서의 몰카
 3540 나와서 두수형 갔시다 내가 다른데 알아볼게요 미안해요
 3608 손 잡고
 3617 손 잡고 미안해요 감시다
 3705 악수하는 장면
 3750 담배 권하는 모습
 3818 대문을 차는 두수형
 아저씨도 너무 하는거 아니예요 안 먹은 사람한테
 3909 내가 봤습 아까 내가 바빠서 못 봤다니까 아까 내가 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못 봤어요
 3940 어디 가셔도 내가 할 탓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셔도 열심히만 살으면돼
 3947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씨도 착한 분이

3959 인사하는 모습
4010 짐 가지고 떠나는 모습
4024 두수형 가는 모습 FOLLOW
4105 짐들고 가는 모습 텨업
4120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고 있는 두수형 줌 인
4212 여의도 바깥 풍경에서 두수형 줌인
4306 바깥 풍경에서 두수형 줌인
4343 바깥 풍경에서 두수형 줌인
4358 바깥 풍경에서 두수형 줌인
4421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길을 걸어가는 두수형
4512 서울역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두수형 모습
4540 서울역 광장에서 양복을 입고 있는 복길형
4653 길을 가고 있는 복길형
4638 포장마차에서 복길형

나 술 취하고 들어와서 밥 한번 얻어 먹어본 적 없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한테 얼마나 해준줄 알아
술 먹으면 해장해야지 자기들 욕심밖에 안 차려
4953

- TAPE 1 윤종구, 박영민, 조내수 인터뷰
- TAPE 2 윤종구 인터뷰 계속. 새실연의 서울역집회. 60대 아줌마 인터뷰
조부장 인터뷰 장애인 노숙자의 인터뷰 윤여현회장 연설
- TAPE 3 에팡양노원 홍성훈 인터뷰. 원장사모 몰카 이사장과 대화하는 김상희
숙소에서 홍성훈, 김상희 인터뷰 떠나는 김상희 인터뷰
- TAPE 4 에팡양로원(동료 인터뷰) 진광수(25세 미혼) 인터뷰
서울역 집회(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진광판 촬영)
서울역 스케치 (노출부족, 진광판밤 촬영)
- TAPE 5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단 발대식. 아침을 여는 집 거리 홍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 서울역밤 노숙투쟁 집회 (TC불량)
- TAPE 6 서울역에서 '거리의 소리'만남(박영민, 조내수, 윤종구). 공원에서 예배드리는 교인.
공원을 촬영하는 여자. 이발하는 종구형, 머리감는 박종필. 은행가는 두수형
막내 인터뷰
- TAPE 7 막내 인터뷰 계속 가스렌지 고치는 형들 공원배식의 김기태 인터뷰
김광모 인터뷰 추종현인터뷰
- TAPE 8 안□□ 인터뷰 은행줄는 복길형과 두수형 출근전날 내수형과 복길형
일하는 할머니들 인터뷰 은행을 줄는 막내를 만나다
카메라를 든 복길형 서울역 밤 김광모 인터뷰
서울역 내온 싸인 CU 서울역 톱 샷 고가밑에서 달려오는 차에서 뻥 서울역 톱샷
- TAPE 9 종묘공원집회 서울역집회에서 노숙자 몰카 태극기를 몸에 댄 노숙자
서울역 스케치 비오는 날 출근을 준비하는 내수형, 책읽는 두수형
- TAPE 10 밤 ###인터뷰 서울역 밤 김현태 인터뷰 아람이네 아침
- TAPE 11 신한국당 집회 비오는 추석연휴 서울역을 거니는 김기태, 김현태 등장, 김광모 등장
서울역 대합실을 거니는 김현태(잠자리, 인력중)
- TAPE 12 추석의 김창균 인터뷰 비 오는 날 복길형 인터뷰
비 오는 날 김광모 인터뷰(양각) 인터뷰하면서 몰카
추석연휴 서울역 안을 배회하는 김광모 비내리는 서울역 밖 스케치
비내리는 서울역 입구 몰카 간질병노숙자 인터뷰
- TAPE 13 비오는 날 간질병노숙자 인터뷰 계속 막내 인터뷰
비, 밤에 대우빌딩 서울역 스케치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부부 노숙자
비오는날 염천교 입구 스케치 지하도에서 막내와의 장난
서울역 지하도의 카메라를 든 노숙자 - 스케치OK
염천교에서 두수형 인터뷰 국군의날 아침을 여는 집 배식
- TAPE 14 배식 계속 엄복길 인터뷰 김기태 서소문 공원→서울역가기
김기태 서울역 밤 댄스 지하보도 강제폭력 인터뷰
염천교 두수형이 떠난 후 추석 낮 서울역 스케치
낮 김기태(꼬지) 인터뷰 DIC부족
- TAPE 15 낮 김기태(꼬지) 인터뷰 계속 낮 추석의 서울역대합실 스케치
밤의 추종현과 김기태 밤에 공원에서 만나는 조내수와 엄복길
슈퍼앞에서의 술 노래방
- TAPE 16 노래방 계속 염천교 지하보도 ZI(노숙자 자는 모습)
서울역밤 스케치 서울역에서 누워자는 김기태
밤 서울역 대합실, 밤, 지하도 몰카 나무옆의 김창균 인터뷰
서울역지하보도 몰카 대머리인터뷰 DIC부족
- TAPE 17 공원의 밤 얼굴을 크게 다친 두수형 서소문공원의 낮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지하보도입구에서 콘을 먹고있는 막내
- TAPE 18 막내 계속 서울역지하도 트래킹 막내가 마구 촬영

서울역지하 보도 트래킹(휴지통을 뒤지는)
공원에서 화투 서소문 공원 스케치
다단계 면접

비오는 밤 서울역 밖 노숙자
막내 인터뷰

TAPE 19 면접 NHK 기자와의 만남 김창균 현금 인터뷰
광모형 인터뷰 양각 촬영 김기태 꼬지, 청국장
[아침을 여는 집]에서 밥 먹는 복길형 TAPE불량

TAPE 20 경찰폭력 모자 쓴 노숙자 인터뷰 서부역 새벽 배식
[아침을 여는 집] 설정 샷 연희 1동 남비현상 집들이 TAPE불량

TAPE 21 집들이 계속. 지하보도에서 광모형 인터뷰

TAPE 22 지하보도의 광모형 계속 (마스크 벗고). 광모형 자고 있는 모습
광모형 서부역 새벽 배식 막노동을 나가는 두수형

TAPE 23 막노동을 나가는 두수형 계속 운전기사 인터뷰
일당을 받아오는 두수형 막노동을 나가는 두수, 내수, 덕수
서울역에서 꼬지하는 모습 서소문 아침
아이들에게 가는 두수형

TAPE 24 온양보육원 계속 [희망의 집] 입소의 두수형 김창균 인터뷰
두수형의 과거 인터뷰 떠나는 두수형

TAPE 25 영등포 합숙소의 두수형 서울역의 양복을 입은 복길형

- # 프롤로그---태극기를 맨 노숙자
- # 타이틀
- # 노숙자 윤종구와 화자
- # 서울역의 노숙자(진광수, 김기태, 김광모)와 집회
- # 넘비현상 - 김기태, 김광모,
- # 일이 있는 노숙자